

지역 소식통

소리소, 손 세정제 기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지역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주)소리소(대표 최항자)는 최근 김제시 거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100mL) 2000개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제시는 24일 (주)소리소 대표 김제시 방문으로 전달식을 갖고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탁받은 손 세정제는 김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자봉센터, 방역 활동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최병철)는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 관내 아동센터 등 12개소 및 시설에 마스크(700여개), 손소독제(40여개) 전달 및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모두 폐쇄한 가운데 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이 급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김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오형진)와 함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하고 시설 방역활동으로 혼신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줄 것을 홍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산불방지 교육

완주군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주민들의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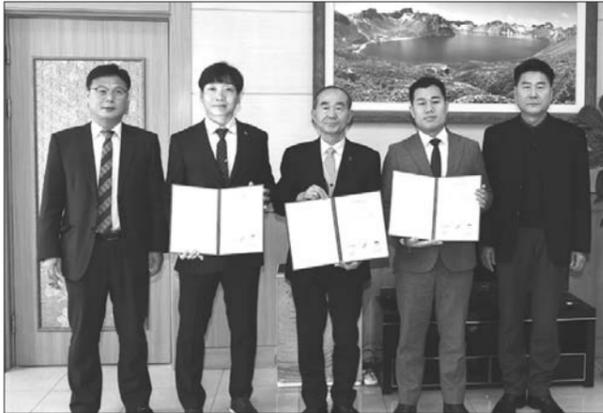
완주군은 최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비봉면 동리마을 과 원백도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산불예방 농·산촌 주민들의 산불예방 의식 함양과 산불위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아스, 김제지평산업단지 투자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내 1만3223㎡에 93억 투자 일자리 47개 창출 계획



김제시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코아스(대표 이도훈)는 24일 김제시청에서 지평선산업단지내에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코아스(대표 이도훈)는 24일 김제시청에서 지평선산업단지내 1만3223㎡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코아스는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및 이동목욕차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국내는 물론 말레이시아 수출 등을 통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이번 투자를 진행하였다.

향후 지평선산단에 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주)코아스는 올 상반기내 새로운 공장을 완공하고 연내 2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47명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우선 지평선산

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이도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코아스가 우리 김제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 센터 신축 및 공동주택 건축,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평선산업단지 조기 분양 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따뜻한 봄을 맛보세요"

'설레이나봄' 팀이 운영 시작 봄 제철·이벤트 메뉴 개시



올해로 3년째인 완주 맛집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이 봄 제철음식으로 찾아왔다.

완주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이 봄 제철음식으로 찾아왔다.

완주군은 외식창업을 준비 중인 완주청년들로 구성된 '설레이나봄' 팀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제철 식재료와 음식으로 싱그러움과 봄을 담은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있다.

3개월간 청년키움식당을 책임질 이들은 계절적 콘셉트를 반영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봄맞이 제철 나물을 이용한 나물비빔밥인 '봄이오나봄', 쌈채소를 곁들인 불 맛 나는 매콤한 제육볶음인 '불타는가봄' 등 재미있는 네이밍도 시선을 끌고 있다.

또한 이번 참가팀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을 통해 매주 이벤트 메뉴도 선보인다.

이에 더해 브런치 카페 운영경험이 있는 팀원의 장점을 살려 점심시간 이후 다양한 수제 샌드위치 등으로 색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식 메뉴와

포장판매에 대한 창업아이템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재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은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하기 전에 본인들의 아이템을 연구해 실제 창업과 동일한 체험 기회를 제공받는 곳이다"며 "전문가들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및 2년 연속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터미널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시, 대중교통 방역 시행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버스·택시·터미널 등에 방역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터미널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시는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마스크를 배부해 운행 중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여객버스터미널·버스·택시 내부에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해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 41대에 대해 1일 1회 이상, 여객터미널과 김제역은 1일 4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2일(토)에는 교통약자 이동콜택시 10대를 비롯해 김제시 관내 전체 택시 380여 대에 대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강화 및 위생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시설개선 조정회의 개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하 등 시설개선을 위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진봉면 심포리 1543번지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의환과 주민대표 박용운 및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김제시장 박준배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진봉면사무소로 이동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민원내용은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 구간 중 성토구간에 교량하 등 요구하는 사항으로 안중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은 노선변경은 불가하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주민과 협의하여 심포4교 교량 연장 80m를 120m 연장하는 등 쟁점 4개 항목에 대한 최종 조정협의안을 마련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농지 배수로 넓히기 및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20년 추경 예산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조하여 우선적으로 민원발생 인접지역에 수로관 확장사업을 진행하는 등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요구사항과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를 작성했고 조정회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장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변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